

# 문장 1: 교회의 교리, 가르침, 정책, 역사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장 1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그룹과 함께 토론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0~13절을 읽고,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조셉 스미스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토론한다. 그런 후 교회 지도자들의 다음 말씀들을 읽는다.



간증은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복음에 관해 탐색하는 질문이 있다 해서 쑥스러워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낙담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명하셨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만[모로나이서 10:4]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에 관한 진리가 “성신의 권능으로”[모로나이서 10:5]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호기심은 갖되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신앙과 빛을 언제나 꼭 붙들십시오.(다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물에 비친 그림자”,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09년 11월 1일)



여러분의 질문들을 주님께, 그리고 다른 충실한 이들에게 가져가십시오. 믿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공부하십시오. 선지자의 삶 전체에서 단 한 개의 흠이라도 찾아내겠다고, 경전에서 단 하나의 모순점이라도 찾아내겠다고 마음으로 공부하지는 마십시오. 의심에 빠진 다른 이들과 그 일을 되풀이하며 의심을 키우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영적인 발견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게 하십시오.(러셀 엠 넬슨,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신앙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리아호나』, 2021년 5월호, 103쪽)



세상에는 주요 질문과 부차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 질문에 답하십시오. 모든 질문이 동등하지 않으며, 모든 진리가 동등한 것도 아닙니다. 주요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요 질문은 몇 가지뿐입니다. 그중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계시는가?
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신가?
3.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는가?
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가?

이와 대조적으로, 부차적인 질문에는 끝이 없습니다. . . .

주요 질문에 답한다면, 여러분은 부차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차적인 질문이 여러분에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곳을 떠나거나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도 자신이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들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Lawrence E. Corbridge, “Stand Forever”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22, 2019], speeches.byu.edu)

다음 질문들에 대해 토론한다.

- 주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가? 주님께 질문을 여쭙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 신앙을 가지고 하는 질문과 의심을 품고 하는 질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신앙을 가지고 한 질문의 예로 엘마서 22장 4~12절을, 의심을 품고 한 질문의 예로 엘마서 11장 21~22절, 26~35절을 읽어 볼 수 있다.)
- 주요 질문과 부차적인 질문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주요 질문을 무시하고 부차적인 질문에만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 여쭙고, 또한 다른 충실한 사람들과 신앙을 키워 주는 출처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배움과 성장을 증진했는가?

이 토론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문장 1을 수정하여 적어 본다. 수정한 문장 및 배운 것들을 반원들에게 나눌 준비를 한다.